1회성 지원 반복 한계…폭염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폭염도 재난이다

〈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140여명
독거노인 등 방문 횟수 늘리고
의료인력 포함된 전담팀 강화
실질적 대책 마련 사전예방 필요

광주·전남에 폭염특보가 13일째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르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거나 독거노인 안부를 묻는 등 형식적인 지원책에만 안주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염특보 발효에 맞춰 보건소 의료인력을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폭염 취약계층 방문 횟수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갖추고 폭염 피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 기준 광주·전남에서는 13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연이은 폭염에 행정안전부는 2019년 이후 4년만에 폭염위기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에서 37명, 전남에서 103명의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오후 5시께 영암군 삼호읍의 한 도로에서 몽골인 A(53)씨가 의식없는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등 올들어 지역내 첫 온열질환 사망자도 발생했다.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지난 2일에는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한 주택에서 B(여·67)씨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B씨는 2시간여 동안 야외에서 폐지를 수거하다 귀가한 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광주·전남 각 지자체에서 폭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폭염재난 대응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폭염 재난 대응으로 '무더위 쉼터 운영'을 첫 손에 꼽았다. 광주시는 경로당 1338개소, 공공시설·은행·복지관 등 661개소 등 총 1999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며 전남도는 전남지역 9215개 경로당 중 7225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난도우미를 통해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 안부를 묻고 쿨토시·쿨스카프·물파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한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1회성 지원만 반복해서는 온열질환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지 1순위로 꼽히는 야외 공사장 근로자들만 해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공사 현장의 경우, 작업자 870여명을 포함한 외부공사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더위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작업 시간을 변경한 사례만 10건 있었고 공사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또한 폭염 시간대에 장애인 이동설비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폭염 시간대 하루 이용자는 10명도 안되고, 노숙자들을 무더위 쉼터로 안내하는 지원사업도 지금까지 시에서 파악한 노숙자 14명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온열질환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직원 2만여명의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 모니터링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고령자, 독거노인 등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1~2회에 그쳐 언제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히 전화로 안부만 묻고 잘 사용하지도 않는 쿨토시같은 물품을 지원하기 보다는 보건소 의료전문 인력을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더 자주 취약계층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광주·전남 경찰 특별 치안활동 강화

시민 불안 해소 위해 역량 총동원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온라인 등에 비슷한 범행 예고 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광주·전남 경찰이 특별 치안활동에 나섰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경찰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한 특별방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최근 사건들이 다중 밀집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6곳(광주송정역,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 광주월드컵경기장, 수완아울렛,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외공원)을 선정해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야간에는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북구 전남대 후문 상가밀집지역, 광산구·북구 첨단지구 유흥가 등에도 경찰력을 집중한다.

전남경찰도 함평역, 나주 중흥골드스파 등 역·터미널, 관광지,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 123곳을 선정해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지역경찰·형사·기동대·특공대 등 1100여명을 배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특공대원들이 6일 오후 광주공항 대합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서도 '묻지마 범행' 예고 잇따라

'흉기 들고 고교 간다'·'나주서 범행' 글 올려…2명 긴급체포

광주·전남에서도 '묻지마 칼부림' 범행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광주경찰과 광주광산경찰은 광주시 광산구 한 고등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다는 예고 글을 올린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6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에 살고 있는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112에 스스로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가 작성한 게시글의 조회수를 높이길 원해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새벽 광주시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중이다.

경찰은 범행이 예고된 초등학교 주변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고, 교육 당국은 이 학교의 방학 중 교육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지난 4일 낮 12시 1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점심먹고 식칼 들고 나주간다"라는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 B씨를 부산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경찰 고위직 친분 과시' 사건 브로커 구속 인사 개입 가능성 속 경찰 내 후폭풍 부나

광주지검, 수사 확대

경찰 고위직 간부들과 친분을 내세워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사기범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 브로커'가 구속됐다.

특히 이 브로커가 "수십명의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을 관리하고 있고 경찰 인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경찰 수사 사건과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내 후폭풍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C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0~30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별도의 사기 범행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에게 A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경찰 고위직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가상자산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고가의 외제차와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A씨가 "경찰 고위직 등의 수사기관 인맥을 동원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C씨에게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C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비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를 구속한 검찰은 경찰 관계자에 대한 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이 C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궁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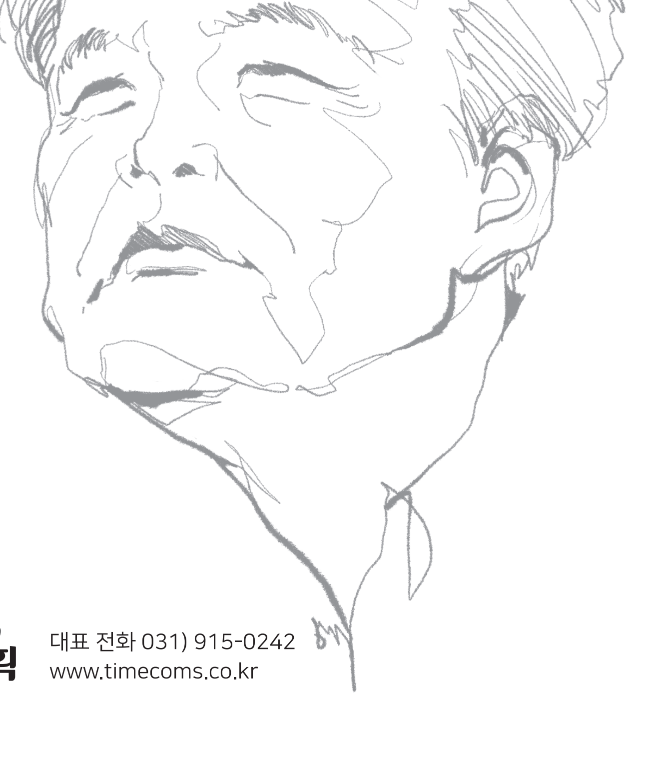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